

재즈를 듣다 - 5

댄스 댄스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유럽 고전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J.S.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는 대부분 익숙하다. 본래 이것은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의 일부다. 필자가 어렸을 때 어떤 책에선 '관현악 조곡', 다른 책에선 '관현악 모음곡'이라고 써 놓은 걸 보고 '조 = 모음'이겠거니 대충 짐작은 했다. 정작 뭘 모았다는 건지를 알 수 없었다. '관악기와 현악기를 한데 모아서 모음곡인가?'라는 엉터리 가설(?)을 세우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놀랍게도 '댄스 모음곡'이었다. 다시 말해 쿠랑트, 가보트, 미뉴엣, 부레, 파스피에, 사라방드... 등이 모조리 춤곡이었다.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 파르티타'에 나오는 샤콘느(chaconne) 역시 춤 이름이다. 샤콘느가 춤이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인터넷에서 'chaconne dance'로 검색하면 복원한 춤을 볼 수 있다. 쿠랑트, 가보트 등의 춤도 시청할 수 있다. 오늘날엔 바흐 음악을 가능하

면 매킨토시 앰프 + 탄노이 스피커가 설치된 리스닝 룸에서 '감상'을 하려고들 하지만, 원래가 댄스 음악이란 점을 상기하면 대단히 이상한 풍습이다. 사실 음악이 순수 감상용으로 소비되는 경우는 20세기 이후가 아닐까 한다. 그전까지 음악의 목적은 대부분 노동요, 민요, 제례, 춤곡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즈 또한 그렇다. 지금은 최고 예술 장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작은 엄연한 댄스 음악이었다. '사보이에서 스톰프를(Stompin' at the Savoy)'이란 곡이 있다.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당시 나는 사보이가 (설마 명동에 있는 호텔 이름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뭘 말하는지 몰랐고, 스톰프란 말도 생소하여 감을 잡지 못했다. 스톰프는 스탬프(stamp)와 동의어로 (도장을 찍듯) 발을 구르는 동작을 말한다. 사보이는 1926년부터 1958년까지 뉴욕 할렘에 있었던 대형 볼룸이다.





그림 1. 사보이 볼룸 / 출처 : atlanticlindyhopper.wordpre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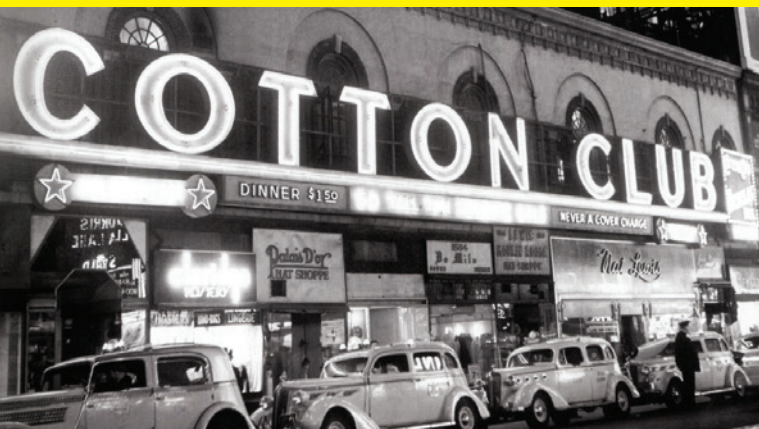


그림 2. 코튼 클럽 / 출처 : boweryboyhistory.com



같은 시기에 대단히 유명했던 코튼 클럽(Cotton Club)은 (쇼는 흑인이 했지만) 백인 손님만 출입이 가능했던 인종 차별이 있던 장소인 반면 사보이 볼룸은 흑인 위주 클럽이었다. 코튼 클럽의 간판스타였던 듀크 엘링턴을 비롯, 칩 웨, 엘라 피츠제럴드, 글렌 밀러 등이 사보이 볼룸에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 유명하게 만든 건 댄서들이다. 이곳이야말로 흑인이 주축이 돼 생겨난 스윙 댄스의 발상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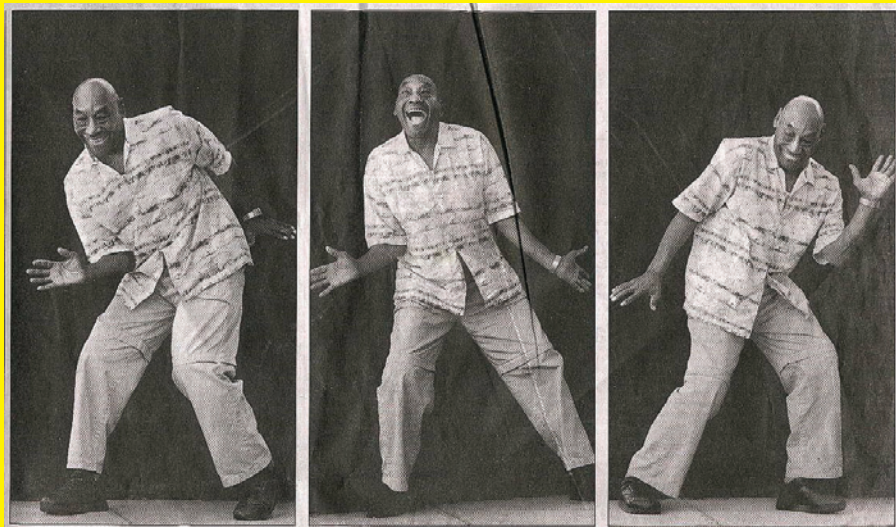
1927년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는 세계 최초로 뉴욕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단번에 건너 33시간 만에 파리에 도착한다. 당시 신문 헤드라인이 ‘린디가 대서양을 뛰어넘었다(Lindy hops the Atlantic)’였다. 이때부터 (아직 이름조차 없이) 사보이 볼룸에서 추던 춤 이름이 ‘린디홉(Lindy Hop)’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 린디홉은 에어리얼(Aerial)이라고 하여 여성을 던지고 받는 등 아크로바틱한 요소가 많은, 워낙 난이도가 높은 춤이라 보통 사람이 따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간소화 한 춤이 생겨났다. 일설에는 빅밴즈 재즈 리더인 캡 칼로웨이(Cab Calloway)가 이것을 보고 벌레(=Bug)가 부르르 떠는(=Jitter) 것 같다고 하여 ‘지터벅’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것을 영국의 댄스 교사가 정리하여 자이브(jive)란 춤을 만들었고, 일본으로 전파돼 ‘지르바끄’가 됐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가 ‘지르박’이 나왔다. 지르바끄는 지터벅 본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르박은 기본 동작에서 사이드 스텝을 없앤 ‘일자 지르박’으로 변질해 어원만 공유할 뿐 다른 춤이다.

한편 ‘린디홉’이란 이름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사보이 볼룸 댄서 중 하나인 쇼티 조지(Shorty George)였다. 본명은 조지 스노든(George Snowden)이나 키가 작아 ‘쇼티’란 별명으로 불렸다. 쇼티 조지의 공식 댄스 파트너는 빅 베아(Big Bea)였는데 ‘큰 곰’처럼 키 큰 여성이었다. 일부러 덩치 큰 여성과 함께함으로써 핸디캡일 수도 있는 작은 키를 장점으로 역전시키는 효과를 노렸던 것 같다. 쇼티 조지의 명성(?)은 현재 스윙 댄서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라인 댄스(line dance)인 ‘심섬(Shim Sham)’에도 남아 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좌우로 흔들며 걷는 동작을 ‘쇼티 조지’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Shim Sham’을 검색하면 흑인 할아버지가 젊

은 여성과 함께 심샘 추는 동영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분이 쇼티 조지와 함께 사보이 볼룸의 간판 댄서였던 프랭키 매닝(Frankie Manning)이다. 하지만 스윙 시대가 끝나고 비밥(Be-bop)이 재즈의 주류로 부상하자, 이 음악엔 춤을 출 수 없을 깨닫고 은퇴했다. 스윙 댄스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수십 년이 흐른 1980년대에 이르러 다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때 흐름을 주도했던 에린 스티븐스(Erin Stevens)와 스티븐 미첼(Steven Mitchell)은 뉴욕에서 30여 년간 무명의 집배원으로 살고 있던 프랭키 매닝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렸다. 덕분에 남은 생을 살아있는 스윙의 전설로서 화려한 시기를 보낸 후 2009년 돌아가셨다. 인터넷에서 프랭키 매닝과 함께 ‘심샘’을 추던 여성이 에린 스티븐스다.

본래 남녀가 함께 춤추는 커플 댄스는 유럽의 문화유산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보트, 미뉴엣의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러 3/4박자의 왈츠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2세 음악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기가 대폭발한다. 20세기가 되자 왈츠 음악이 느려지기 시작하여 이에 따라 춤도 느린 동작으로 변해 갔다. 과도기에 ‘보스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 ‘슬로우 왈츠’가 나온다. 슬로우 왈츠 인기가 점점 더 커지자 주객이 전도돼 오늘날엔 ‘왈츠’ 하면 느린 왈츠를 말하고, 원래의 빠른 왈츠는 ‘비엔나 왈츠’라고 불린다. 19세기 말 랙타임이 등장하자 흑인이 만든 ‘케이크 워’와는 별개로 4/4박자에 맞춰 추는 여러 가지 춤이 등장한다. 동물의 동작을 흉내 낸 코믹한 춤을 총칭해 ‘애니멀 댄스’라 했다. 각각의 춤 이름에도 그리즐리 베어(Grizzly Bear), 터키 트롯(Turkey Trot), 허니 버그(Hunny Hug) 등 동물이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날 인기 있는 볼룸 댄스로 자리 잡은 폭스트롯(Fox Trot)이란 춤이 나온 배경이 아닐까 한다. 일설에는 당시 유명 댄서였던 해리 폭스(Harry Fox)의 이름을 따온 거라는 주장도 있긴 하다. 폭스트롯은 처음에는 보통 걸음 또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추던 춤이었으나 (왈츠가 슬로우 왈츠로 변해갔듯) 점점 느려져 ‘슬로우 폭스트롯’이 나왔다. 오늘날엔 ‘슬로우 폭스트롯’이 폭스트롯이 되었고, 원래 폭스트롯은 ‘퀵스텝(Quickstep)’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폭스트롯과 퀵스텝은 빅밴드 재즈와 관련이 깊다.



At 88, Frank's not the least jittery . . . and he's still got the bug

그림 3. 프랭키 매닝 / 출처 : imdb.com

프랭키 매닝, 쇼티 조지를 위시한 사보이 볼룸 댄서들이 린디홉 혁명을 주도했듯, 버논 & 아이린 캐슬(Vernon & Irene Castle) 부부는 랙타임, 초기 재즈 시절 유럽으로 건너가 커플 댄스 유행을 주도했던 전설적 인물이다. 버논은 1887년 영국에서, 아이린은 1893년 미국 뉴욕 태생이다. 결혼하기 전 버논은 코미디쇼에 술 취한 행인 역을 도맡아 하는 댄서 겸 배우였다. 결혼 후 파리로 건너가 처음엔 터키 트롯, 그리즐리 베어 같은 랙타임 댄스를 선보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던 중 ‘원스텝(One-step)’이라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춤을 선보이며 크게 성공을 거둔다. 이 춤이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 훗날 ‘캐슬 워(Castle Walk)’으로도 불리게 된다. 또한 아이린은 당대의 패션 아이콘이 되어 머리 모양, 옷차림을 여성들이 따라 하였다. 파리에서 미국으로 금의환향한 후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 작곡자로 유명한 어빙 벌린의 브로드웨이 데뷔작, ‘워치 유어 스텝(Watch Your Step)’에 출연하여 폭스트롯 재발견에 공헌하였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버논 캐슬은 입대하여 비행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나 1918년 비행 훈련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다.

이들의 생애는 영화로도 제작돼 1939년 ‘버논 & 아이린 캐슬 이야기(The Story of Vernon and Irene Castle)’란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주연은 프레드 아스

테어(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로 이보다 더 적합한 캐스팅은 없었을 것 같다. 영화에선 두 사람이 윈스텝을 고안해 내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렸다. 프랑스로 떠난 두 사람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질 않는다.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결국 무일푼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 버는 캐슬이 마지막으로 춤이나 추자며 특별한 제안을 한다.

(평소 추던 대로 추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래층에 울리니) 공중에 뜬 것처럼 조용히 걷자.
(원래 대사는 "We can do it quietly, Just as if we're walking on air")



그림 4. 버는 캐슬과 아이린 캐슬 / 출처 : wikipedia.org

이 순간, 춤에 관한 고정관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꼭 발 끝(= Toe)으로 서서 우아하게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평소 걸을 때처럼 뒤편에서 앞꿈치로(= Heel & Toe) 체중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음악에 맞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 같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알고 나면 쉽지만,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발상의 전환이다. 비슷한 시기에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나와 현대 무용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사도라 덩컨(Isadora Duncan)이 행한 첫 번째 행위 역시 토슈즈를 거부하고 맨발로 그냥 걷는 것이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면 이 또한 시대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림 5. 영화 '버는 & 아이린 캐슬 이야기' 포스터
/ 출처 : pinterest.at/pin/487936940851639104

					
사보이에서 스톱트를	린디 huh	쇼타 조지와 빅 베아	심샘, 프랭키 매닝	캐슬 wok	버는 & 아이린 캐슬 이야기

'댄스 댄스' 관련 유튜브 영상 QR 코드